

틀에서 벗어나기 Ⅲ

생명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1-5]

-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 2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 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 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1.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셨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2절에 보니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한 39가지의 금지 사항이 있었다 (참고: 유대인의 금기사항). 이러한 금지 사항들을 어기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로 여겨졌으며, 반대로 우상숭배자라도 안식을 거룩히 지키면 죄를 사함 받는다고 가르치셨다. 그만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이 논쟁의 이유가 된 것은 ‘손 마른 자’의 상태가 생명에 위급을 느낄 정도로 위급한 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안식일 규례들을 범하는 것이 용납되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허락되어 있는 일이다)

누가복음 13장 10-17절의 18년 동안 귀신에 잡혀있는 여자를 고쳐 주셨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된 것은 다른 날에 해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칠 만큼 위급한 사람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누가복음 13:15-16]

- 15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 16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변증은 분명했다. (랍비들의 전형적 성서해석 방법-작은 전제에서 큰 전제로) 즉, ‘동물도 안식일에 풀어 주는데 사람은 당연한 것 아닌가?’로 분명히 반문하셨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 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 또한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다.

2.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

[마가복음 2:27-28]

- 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하거나 어기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다.

(1) 나는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마가복음 3: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4절의 말씀을 하신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다. 안식일의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셨다.

당연히 선, 생명이 옳다. 당연한 일이다. 위급한 일과 위급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생명의 선'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이 반응이 '몸'의 반응이다.

'혼'의 영역에서 '속임'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생각의 영역에서 개념화'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것이 '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바리새인을 지적하신 이유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정말 타당한 개념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러므로 정말 본질로 들어가려면 '생각'이 변해야 한다.

(2) 완악한 마음

[마가복음 3: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이유를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씀하셨다. 영적인 것이다. 굳어 있다는 것이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일을 탄식하셨다. 생명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몸을 보시며 노하셨다. 무엇이 완악함인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하지 않는다. 선지자가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완악함은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나는 어디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가? 나는 본질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3) 생명에 반응하도록 훈련하고 경작해야 한다.

오늘부터 생명에 반응하는 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영혼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조직', '구조', 비본질적인 가치에서 나와야 한다. 소모전이 없어야 한다. 생명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쉽지 않다. '점검'하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정령되어야 한다. 잘못된 모든 영역을 가지치기 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생명에 반응하라. 영혼의 필요에 반응하라. 그러면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찾아가 살려야 한다.